

- 춘천~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-

「강원도 생태·환경자문단」 회의 결과

I 회의 개요

- 일 시 : 2019. 12. 17.(화) 14:00
- 장 소 : 강원도청 본관 2층 소회의실
- 참 석 : 13명(전문가 6, 도 1, 시·군 6)
- 주요내용
 - 「강원도 생태·환경 자문단」 위원 위촉 및 위촉장 전달
 - 춘천~속초 철도건설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설명
 - 철도건설에 따른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 토론 및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

II 주요 자문의견

- 조범준 위원(야생동물연합 사무국장)
 - 터널공사에 따른 지하수 변화조사 관련 기존 천성산 터널 공사 환경영향 모니터링 자료 등 사례 조사 후 그 자료를 분석하여 환경영향 평가 및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대응
 - 철도 주위의 펜스 설치로 인해 생태단절 등 문제가 발생하여 향후 설계 단계에서 야생동물 이동가능한 생태통로 설치 등 자문단에서 제시되는 의견 적시 이행 필요
- 김석현 위원(강원대학교 교수)
 - 철도는 주변지역 소음 민원 발생건수가 많기 때문에 춘천 지하화 및 기타지역 기존 주거지·축사 등에 소음진동 저감 시설 설치 필요

○ 박완근 위원(강원대학교 교수)

-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철도 노선 및 역사 위치 등 세부적인 자료를 통해 범정보호종 현황 파악 및 조사 필요

○ 한영한 부위원장(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)

-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서, 기본 계획 고시 후 세부 노선 등 자료를 통해 생태·환경 쟁점사항을 집중적으로 대응
- 국가적으로 인구감소가 점점 심해지고 특히 강원도는 인구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및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시 환경과 사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어젠다 및 대안 제시

○ 한성용 위원(한국수달연구센터 센터장)

- 선진국의 친환경 공항 설계 등을 참고하여 강원도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자연형 역사 건립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, 야생환경과 도심 역사 주변 환경문제를 동시에 접근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응

○ 김세현 위원장(상지대학교 교수)

- 철도건설 영향평가 및 국립공원심의 등의 주체는 철도시설공단이기 때문에 향후 회의 시 철도시설공단 환경담당자 참석 필요
- 생태환경자문단 회의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등을 사전에 발굴하여 적극적인 대응

○ 최규철 위원(화천군 환경과장)

- 철도공사시 터널 공사로 인해 지하수 물길 및 수위 변화 문제가 대두 되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예상되며, 특히 화천구간 터널에 대한 지하수위 변화 대책 필요

Ⅲ 조치 계획

- 철도 공사로 인한 생태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설계시 최적 구간에 생태통로박스 설치 의견 적극 반영
- 천성산 터널 및 국립공원 통과터널 사례에 대한 환경영향 모니터링 자료 취합 및 분석
- 철도 노선 주변 지역 정온시설 현황 조사 후 주거지·학교·축사에 피해가 없도록 소음·진동 저감시설 설치
- 향후 자문단 회의시 국토부·철도시설공단 관계자 및 용역사 참석
- 기본계획 고시 후 속도감 있게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세부 노선 및 역사 등의 위치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 및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 생태·환경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

Ⅳ 향후 계획

- 환경영향 예상분야별 저감 방안 지속협의 : '20. 1월 ~
※ 자문단 회의 주요의견 적극 반영 및 정기(수시)회의 개최
- 야생동물 법정보호종 현지 조사 실시(도+전문가) : '20. 6월 ~ 10월

붙임 자문회의 진행사진 1부. 끝.

[붙임] 자문회의 진행사진

